

## 우리나라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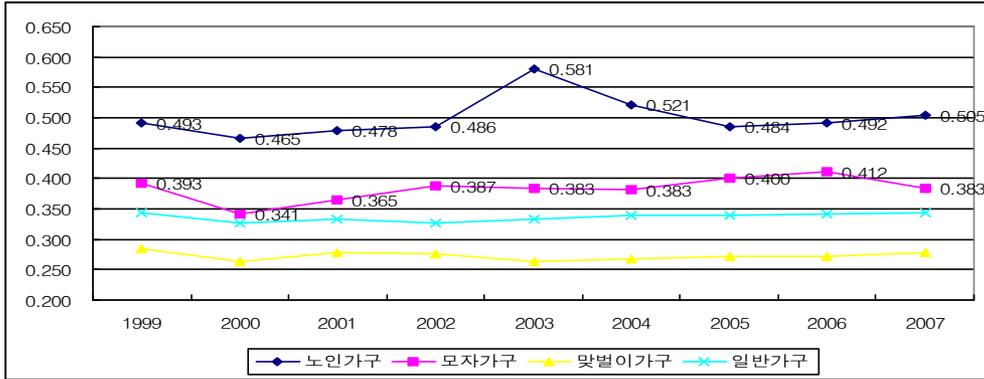
- 전통적인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지니계수는 0.342로 1999년과 비슷한 수준임.
  - 가구유형별로는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는 추세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노인가구의 지니계수는 1999년 0.493에서 2003년 0.581까지 증가했고, 이후 2006년까지 0.492까지 하락하다가 2007년 현재 0.505까지 증가했음. 이는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보다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된 수준임(그림 1 참조).
  - 모자가구의 경우도 1999년 지니계수가 0.393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2006년까지 0.412까지 증가했음. 2007년 현재는 0.383으로 소득불평등이 1999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 도시가구의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 실질시장소득의 변화(2인 이상, 시장소득 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니계수	전 체	0.341	0.325	0.334	0.330	0.327	0.330	0.333	0.337	0.342
	노인가구	0.493	0.465	0.478	0.486	0.581	0.521	0.484	0.492	0.505
	모자가구	0.393	0.341	0.365	0.387	0.383	0.383	0.400	0.412	0.383
	맞벌이가구	0.284	0.263	0.279	0.275	0.263	0.267	0.271	0.273	0.277
	일반가구	0.343	0.327	0.334	0.326	0.333	0.339	0.339	0.341	0.344
실질소득	전 체	1,219	1,300	1,374	1,443	1,476	1,518	1,530	1,576	1,619
	노인가구	632	611	688	628	490	581	566	578	547
	모자가구	1,039	1,067	1,047	1,031	1,202	1,282	1,253	1,314	1,232
	맞벌이가구	1,542	1,627	1,738	1,810	1,822	1,920	1,890	1,963	2,053
	일반가구	1,144	1,227	1,287	1,357	1,373	1,408	1,417	1,452	1,491
실질소득 증감률	전 체	-	6.65	5.69	5.02	2.24	2.84	0.83	3.00	2.71
	노인가구	-	-3.32	12.47	-8.70	-22.00	18.73	-2.60	2.15	-5.50
	모자가구	-	2.67	-1.88	-1.47	16.53	6.64	-2.26	4.92	-6.25
	맞벌이가구	-	5.48	6.86	4.12	0.68	5.39	-1.60	3.89	4.58
	일반가구	-	7.26	4.86	5.45	1.15	2.57	0.62	2.46	2.73

주 : 가구균등화지수 적용, 가구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는 방식의 개인가중치 사용.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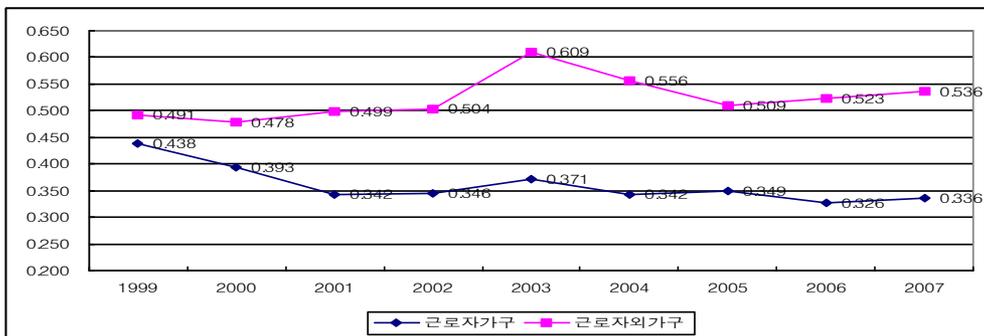
[그림 1] 도시가구의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추이(2인 이상, 시장소득 기준)



○ 분석기간 동안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실질 시장소득의 감소 현상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임.

-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는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2003년에는 무려 22.0%의 실질 시장소득의 감소를 경험했음.
- 노인가구의 실질 시장소득의 감소가 불평등의 악화로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으로부터 획득되는 근로소득의 절대적 감소 및 이들 가구의 소득계층별 불균등한 분포를 유발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됨.
- 또한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근로자외가구(가구주의 종사장 지위가 자영자와 무직자인 가구)의 불평등의 악화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평가됨.
- 근로자가구의 경우,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 지니계수가 0.438로 가장 높았던 것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07년 현재 0.336까지 개선된 반면, 근로자외가구는 1999년 0.491이었던 지니계수가 2003년 0.609까지 증가했고, 2007년 현재는 0.536으로 1999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노인가구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



## ※ 각종 지표에 대한 해설

##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순으로 인구의 누적 분포와 소득누적 비율의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분배균 등선(45°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로 구해지며,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함. 지니계수의 산출에 사용된 소득변수는 가구규모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감안해 주기 위해 가 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함. 여기에서는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는 OECD 방식을 활용함.

## 2.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 3. 가구유형

노인가구 : 18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모자가구 : 모(母)와 18세 미만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맞벌이가구 :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

일반가구 : 노인·모자·맞벌이가구를 제외한 가구 **KLI**

(반정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